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68회>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안 나온다(마22:45)



성경과 격암유록에서 증거하는 밀실(구세주 조희성님이 연단 받을 당시의 모습) 내 백성이 갈지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이다(이사야 26:20), 聖住蘇萊老姑地人生造物三神主 東海三神亦此山(隱秘歌)

- 10절 : 두 이긴자를 증거하는 영모님
- 1) 해와 이긴자와 밀실
 - 2) 삼위일체를 계시한 십 사만 사천의 의인
 - 3) 제3신인존의 비화(秘話)
 - 4) 해와 이긴자가 일곱째 천사를 인도함
 - 5) 밀실에 입문하다
 - 6) 밀실에서 일초일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
 - 7) 좋아하는 것이 음란죄
 - 8) 죄의 정체, 마귀의 금소를 최초로 알고 공격함
 - 9) 내가 이겼나오, 하나님이 나를 이겼나이다

5) 밀실에 입문하다

(자난호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잘못된 신관(神觀)과 기독교의 시발점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가에서 예수에게 물세례 줄 때에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 올 때에 공중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태복음 3장 17절).”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니까, 높은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 줄 알고 있는 신관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은 공중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까(요한복음 1장 34절).”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졸지에 예수는 메시아가 되었고, 이것이 기독교의 시발점이고 궁극적으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역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위장하고 메시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신이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신이라.”고 하였고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공중신은 악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 공중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신이 되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가 공중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자신이 봤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예수 스스로가 공중하늘에 사탄 마귀가 있다고 증거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자신이 틀림없이 공중신이라는 증거는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명백해집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진당을 진멸하기 위해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 공중하늘에서 “사울아-사울아-” 하는 소리를 듣게 되

었습니다. 사울이 겁을 집어먹고 수풀 속으로 숨어들어가서 앞드리고는 “주여, 누시이니까?”하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하는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위와 같이 세례요한의 잘못된 신관만 지적하고 인류에게 영생하는 비결을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진정한 구세주의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불리기에 합당치 아닐 것입니다. 또 유사 이래 영생하는 비결을 논한 자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참구세주가 지상에 온 적이 없다고 됩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 6천년 만에 일곱째 천사인 둘째(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구세주께서 “천국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천국이다.”라는 새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진리의 영이 되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새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예언이 지금에 와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생소한 말씀이지만 “천국이 하나님이다.”는 이 말씀 속에 영생하는 비결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천국의 소재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말씀대로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된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존재인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랑’을 이기는 구세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가 가사에서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하나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에서 결코 천국이 성립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를 영생케 하는 참구세주는 마음속에 이긴자 하나님을 영원히 모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자입니다.

분명히 성경 속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11:25).”,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맞보지 아니하리라(요8:51).”라고 예수의 말이 쓰여 있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며 예수 말을 지키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또 “내가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으면 이미 벌써 너희들에게 하늘나라가 임했을 것이다(마12:28).”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예수 스스로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자백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령을 받아서 내쫓았다고 말할 수 있지 그렇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예수는 마귀신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요 스스로 마귀새끼라고 자백한 꼴입니다.

이밖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라고 쓰여 있는데도 십자가 나무에 예수가 달렸다고 교회건물 첨탑에 붉은 십자가를 높이 매달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는 오히려 예수를 욕 돌리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행위입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안 나온다(마22:45).”고 했으며,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므로 예수는 가짜 구세주라는 것이 성경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또 “내 뒤에 이 세상 임금이 오신다(요 14:30).”라고 쓰여 있는데, 이 말은 예수 스스로 “나는 이 세상 임금 즉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이실직고한 말입니다.

6) 밀실에서 일초일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

이긴자의 길은 자신 속에 옛 사람을 짓기에는 길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옛 사람이 곧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로 늘 반대생활로 일관하면서 ‘나’라는 마귀 영을 죽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천사가 마음의 싸움에서 어찌다 한 번이라도 마귀한테 지게 되면, 밀실 안에서는 해와 이긴자를 비롯하여 밀실 식구들의 통곡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치열한 마음의 싸움이다보니가 이들이 멀다하고 통곡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에는 민가가 가까이 없고 산과 하늘만이 있는 한적한 곳에 이르기 위하여 울려 퍼지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는 시대의 기도는 마귀를 박멸소탕할 수 없었다

치열한 마음의 싸움! 과거를 생각하면 뒤돌아보는 음란죄요, 예상을 하면 예상을 하는 음란죄를 졌다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아무리 자유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자신도 모르게 쓴 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의 밀실 입문 초기에는 쓴 뿌리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쓴 뿌리가 나오려고 할 때 쓴 뿌리가 나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나오려고 도사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미리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기도로써 그 쓴 뿌리를 뿌리째 뽑아서 무저항에 쓸어 넣어주세요.” 하는 기도를 수없이 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여섯째 인을 떼는 해와 이긴자가 역사하는 시기로 무저항(無底缸)에 쓸어 넣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완전히 이긴자가 되기 전까지 기도 방법은 “음란 마귀를 뿌리째 뽑아서 무저항에 쓸어 넣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곱째 천사가 완전히 이겼다가 된 다음에는 기도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마귀를 무저항에 쓸어 넣는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이제 마지막 완성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마귀를 박멸소탕해서 가루도 존재도 없이 없애버리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 또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밀실 안에 있던 식구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바깥세상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밀실에서는 죄의 뿌리를 뽑는 기도를 하였는데, 일 년도 아니요 몇십 년이나 계속되어지면서 은혜로 살려고 하는 전도사들이 전부 이곳을 거쳐 갔던 것입니다. 해와 이긴자가 이 사람을 키워 봐도 안 되고 저 사람을 키워 봐도 안 되고 이 사람이 와도 진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와도 진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도사 출신의 홍석전 장로라는 사람도 키워봤지만 안 되었는데 이어서 붉은 용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붉은 용이라는 사람은 해와 이긴자를 깨 패듯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깨 패듯이 매를 맞으면서 은혜를 간직해야 하는 해와 이긴자는 이런 연단을 육질 년간이나 받아야 했는데 정말이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붉은 용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해와 이긴자를 괴롭혔을 것이다

마침 일곱째 천사가 밀실에 들어갔을 때에도 붉은 용이라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해와 이긴자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곱째 천사가 지라기 시작하니 그 붉은 용이라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일곱째 천사가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지 아니하였다면 그 붉은 용 마귀라는 사람은 떨어져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붉은 용 마귀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해와 이긴자를 괴롭히던 청년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일곱째 천사를 공연히 미워하고 시기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해와 이긴자께서는 밀실에 갇혀있는 일곱째 천사한테만 “저 청년이 조사장 대상(對相)의 붉은 용 마귀야!”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들을까 봐 몰래 아무도 없는 데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천사가 거의 거의 이긴자가 되어갈 무렵, 어느 날 일곱째 천사를 괴롭히던 붉은 용 마귀가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기에 해와 이긴자께서는 말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붉은 용 마귀가 며칠 만에 집에서 돌아오자, 해와 이긴자께서는 “너는 음란죄를 짓고 왔으니 이 밀실에서 지낼 자격이 없다. 그러니 당장 집을 빠져 나가라.”라고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그 붉은 용 마귀라는 청년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나의 처와 음란죄를 지는 것을 알아맞히는가?”라고 중얼거리면서 밀실 밖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박한수



정심행선분(淨心行善分) 第二十三

깨끗한 마음으로 착함을 행하라 (1)

착한 것을 행한다고 함은 순수하게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살생과 흡치는 일과 음란한 행, 거짓된 말과 이간질, 험담, 잡스러운 말, 욕심, 해치려는 마음과 사되게 보는 것 등을 하지 않는 것을 이른다. 이러한 행을 하려면 우선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가운데 보살행을 하여야 이런 깨끗함으로 착한 행을 보일 수 있다.

復次須菩提 汝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 是法平等無有高下 是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 以無我無人無眾生無壽者 修一切善法 即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또 수보리아,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어야 이를 ‘아누다라삼막삼보리’라고 이름하는 것인데, ‘나’라는 생각(我相)이 없고, ‘사람’이라는 생각(人相)이 없고, ‘중생’이라는 생각(衆生相)도 없어야 하며, ‘오래 산다’는 생각(壽者相)도 없어야 한다. 모든 착한 법(一切善法)을 두는 것이 되고, 곧 아누다라삼막삼보리(無上正等正覺)를 얻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해석]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법(法)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本始) 너와 나의 차별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므로 불법(佛法)은 평등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는 일체 중생이 평등함을 강조한 말씀이 많지만, 이 중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 대반열반경 25권 사자후보살품(師子吼菩薩品) 제23-1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45>



是處無死即是甘露 是甘露者即眞解脫: “감로가 있는 곳에 죽음이 없고 감로를 내리는 분이 진짜 해탈자다.” _ 『大般涅槃經 四相品』

我常宣說一切眾生悉有佛性 乃至一闍提等亦有佛性 내지일천제등역유불성 내가 항상 일체중생에는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일천제들도 또한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심회향품(迴向品) 제5-7 得業平等 得報平等 得身平等 得方便平等 得願平等 得一切眾生平等 得一切刹平等 得一切行平等 得一切智平等 得三世諸佛平等 得一切行平等 得一切智平等 得三世諸佛平等 得一切行平等 得一切智平等 得三世諸佛平等 得一切行平等 得一切智平等 得三世諸佛平等

하고, 얻는 원이 평등하고, 일체중생들이 평등하고, 일체의 도량이 평등하고, 모든 행이 평등하고, 모든 지혜가 평등하고, 삼세불이 평등하니...

[해석] 이같이 경전에는 일체중생이 불성이 있으므로 평등하며 심지어는 부처님의 바른 법을 깨고 비방하는 일천제까지도 불성이 있다고 하였으니 불성은

바로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함은 바로 어느 누구든 또 어떤 류에 속하든 그 생명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온 우주의 삼라만상이 한 몸이었으나 번뇌로 인하여 산산조각이 나서 지금의 모습을 이루고 있으니, 본래는 한 몸이었으므로 모두 다 아끼고 서로 자기의 몸처럼 귀하게 여겨야 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평등에 차별이 있다고 하면 이는 말도 안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서로 “네가 높이나? 내가 높이지!” 하는 우월감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별상! 그리고 심지어는 부처님의 법을 배운다고 하는 지금의 절에서 수행한다고 하는 스님들도 큰 스님, 중간 스님, 심지어는 새끼 스님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니 웬 계급의 차별이 그리도 심한지 참 우습지요.* 明鍾